

고용노동부 -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기본정보>

- 사업유형/세부유형 : 고용장려금사업/고용창출형
- 소관부처/담당부서 : 고용노동부/고용정책총괄과
- '21년 평가등급 : 개선필요

1 사업 주요 내용

□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사업목적) 근로시간 단축 및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
- (사업내용) 일자리함께하기 제도 도입을 통해 실업자를 신규 고용,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 증가 근로자 1인당 연간 480~1,200만원 지원(최대 3년)
 - 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자 1인당 연간 120~480만원 지원(최대 3년)

□ 예산 및 재원: 고용보험기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년			'21년 예산 (B)	증감(B-A)	
	본예산 (A)	추경	결산			(%)
□ 고용창출장려금	1,143,095	636,126	1,573,398 (88.4%)	186,481	△956,614	△83.7
○ 고용창출장려금	149,994	201,162	145,668 (41.5%)	185,507	35,513	23.7
▪ 일자리함께하기	66,063	△17,018	42,603 (86.9%)	64,625	△1,438	△2.2

□ 추진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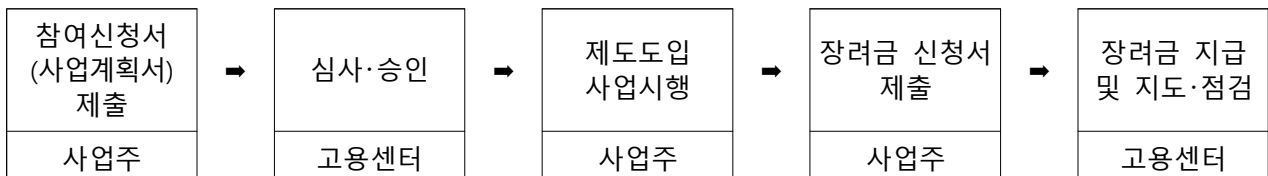
-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 주요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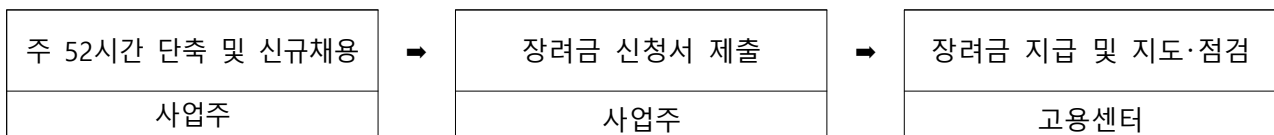
- 근로시간 단축 및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주

□ 전달체계

- (공모형)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 (요건심사형) 주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



□ 전년 대비 주요 개편사항

- '21.7.1. 5~49인 사업장 주 52시간제 신규적용
 - 목표 지원인원: ('20) 14,193명 → ('21) 21,704명

2 정량지표 평가 결과

□ 참여 근로자 현황

- (참여 근로자 수) '20년 기준 일자리함께하기 장려금을 최초 지원받은 근로자 수는 3,836명으로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전체 근로자 중 0.1%, 고용창출형 장려금을 지원받은 근로자 중 2.3%를 차지함.

- (성별) 남성 근로자의 지원 비중이 96.1%로 여성 근로자의 지원 비중 (3.9%)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 중년(51.6%)과 장년(37.5%)의 지원 비중이 높고, 청년(6.5%)과 고령(4.5%)의 지원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표 1〉 일자리함께하기 참여 근로자 현황

(단위: 명, %)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청년 (15~34세)	중년 (35~54세)	장년 (55~64세)	고령 (65세이상)
고용장려금 전체	2,583,913 (100.0)	1,176,447 (45.5)	1,407,404 (54.5)	1,253,831 (48.5)	957,824 (37.1)	296,284 (11.5)	75,650 (2.9)
고용창출형 전체	168,420 (100.0)	95,056 (56.4)	73,364 (43.6)	130,231 (77.3)	17,890 (10.6)	11,557 (6.9)	8,662 (5.1)
일자리 함께하기	3,836 (100.0)	3,687 (96.1)	149 (3.9)	248 (6.5)	1,979 (51.6)	1,438 (37.5)	171 (4.5)

주1: 성별, 연령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여 각 비율의 합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참여 사업장 현황

- (참여 사업장 수) '20년 기준 일자리함께하기 장려금을 최초 지원받은 사업장 수는 47개소로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전체 사업장 중 0.01%를 차지하며, 고용창출형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 중 0.2%를 차지함.
- (규모별) 300인 미만 사업장(87.2%)이 대다수이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참여도는 12.8%로 낮은 편임.
- (산업별) 서비스업(51.1%)과 제조업(48.9%)의 참여 비중이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표 2〉 일자리함께하기 참여 사업장 현황

(단위: 개소, %)

유형	전체	규모별		산업별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고용장려금 전체	336,601 (100.0)	333,357 (99.0)	2,258 (0.7)	64,040 (19.0)	8,350 (2.5)	262,195 (77.9)
고용창출형 전체	29,097 (100.0)	28,362 (97.5)	452 (1.6)	7,507 (25.8)	1,468 (5.0)	19,758 (67.9)
일자리 함께하기	47 (100.0)	41 (87.2)	6 (12.8)	23 (48.9)	0 (0.0)	24 (51.1)

주1: 규모별, 산업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므로 각 비율의 합은 100%미만일 수 있음

□ 정량지표별 결과

〈표 3〉 일자리함께하기 정량지표 결과

(단위: %)

	고용유지율 (6개월)	고용증감률 ¹⁾	기업생존률 ²⁾
고용장려금 전체	81.2	25.3	84.8
고용창출형 전체	73.1	29.3	/
일자리함께하기	87.9	9.6	/

주1: 고용증감율은 고용창출형과 고용유지형에서만 산출하며, 고용유지형은 종료 후 고용증감율로 산출
 2: 기업생존률은 고용유지형과 고용안정형에서만 산출
 3: 모성보호형은 고용유지율만 산출

□ 만족도 조사 결과

○ 항목별 만족도

〈표 4〉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함께하기) 만족도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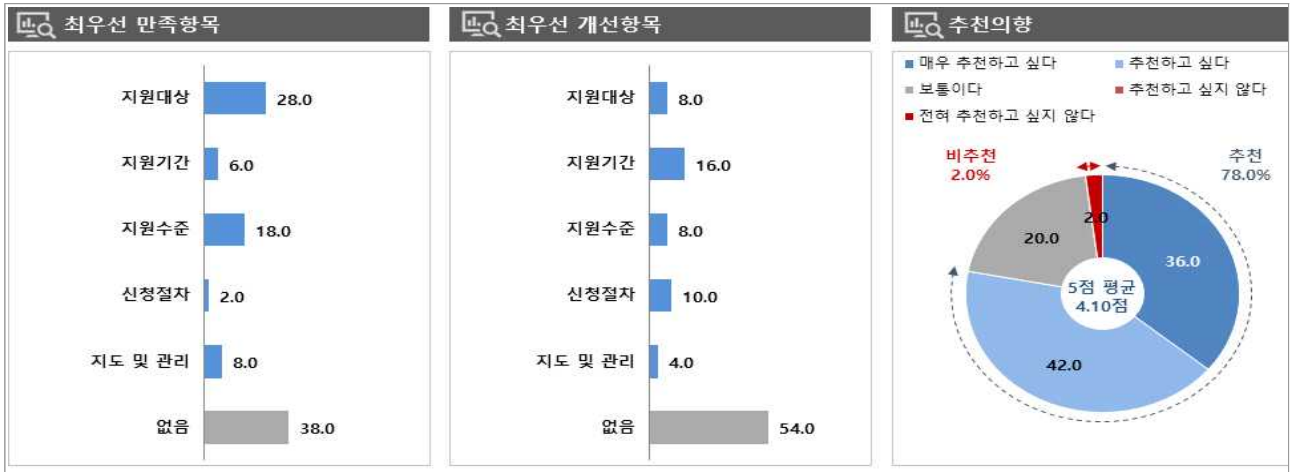
(단위: 점)

	전체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절대적 만족도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신청 절차	지도 및 관리	주관적 만족도	상대적 만족도
고용장려금 전체	4.20	4.19	4.19	4.36	4.21	4.17	4.05	4.16	4.28	4.16
고용창출 전체	4.18	4.18	4.18	4.37	4.22	4.16	3.98	4.17	4.26	4.16
일자리함께하기	4.06	3.98	4.01	4.26	4.04	4.02	3.68	4.06	4.22	4.02

주: 1) 만족도 조사 결과는 1점 매우 불만족부터 5점 매우 만족까지로 구성된 5점 척도 문항의 평균값임
 2) 전반적 만족도: 사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절대적 만족도: 5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
 주관적 만족도: 사업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 상대적 만족도: 사업에 대한 기대 대비 만족도

○ 만족/개선 항목 및 추천 의향

[그림 1]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함께하기) 만족/개선 항목 및 추천 의향



주: 1) 만족항목

- 전체: 지원대상(28.8) > 지도수준(16.9) > 지도/관리(10.3) > 지원기간(9.8) > 신청절차(9.1) ; 없음(25.1)
- 창출: 지원대상(23.4) > 지원수준(13.8) > 지도/관리(10.4) > 지원기간(10.1) > 신청절차(9.7) ; 없음(32.6)

2) 개선항목

- 전체: 신청절차(8.6) > 지원기간(5.9) > 지원수준(4.8) > 지원대상(3.7) > 지도/관리(3.1) ; 없음(74.0)
- 창출: 신청절차(11.5) > 지원기간(5.0) > 지원수준(4.9) > 지원대상(4.4) > 지도/관리(2.4) ; 없음(71.7)

3) 추천 의향

- 전체: 4.29점, 추천(81.9=31.4+50.5) > 보통(15.4) > 비추천(2.7=2.1+0.6)
- 창출: 4.22점, 추천(80.1=33.9+46.2) > 보통(16.8) > 비추천(3.1=2.2+0.9)

3 정성지표 평가 결과

□ 사업의 중요성

○ 이 사업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신규 고용을 창출할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으로 중요성이 높은 사업임

- 국정과제(71-1)에 속한 사업으로, 연간 1,800시간대의 노동시간 실현을 위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주 52시간제 안착 유도
- 교대제개편,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순환제를 통해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신규채용 인건비 및 기존 재직자 임금감소액을 보전·지원하고 있음
- 다만, 사업주에게 고용창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모니터링 등 사업집행의 어려움이 있는 사업임

□ 일자리사업 성과

-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 20년 목표 인원과 예산액, 지원금을 과소하게 설정했으나, 코로나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수행되어 개선이 필요함
 - 코로나 사태로 고용유지 조치(휴업, 휴직) 사업장 증가 및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유예('20.1~7월), 탄력근로제(3~6월) 도입 등의 사유로 사업이 제한적으로 수행됨
- * 20년 최초 참여사업장은 47개소, 최초 참여인원은 3,836명이며, 전체 참여사업장은 207개소, 전체 참여인원은 13,825명

□ 운영의 적절성

-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사업주의 기피 요인, 담당인력의 타 사업 투입 등 인력부족으로 인해 사업운영에 난항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모니터링에 참여한 두 지역의 경우 동 사업의 신청 건수와 승인 건수가 거의 없었다고 보고된 바 있음
 - '20년 사업수행이 있었던 곳에서도 담당자들이 특별 고용촉진 장려금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업무 마비를 호소
- 본 사업 참여자의 고용유지율이 고용창출형 장려금에 비해 높은 편이나, 고용증감율이 낮은 편
 - 남성 근로자 비중이 다수를 차지하여 제조업 외에도 사회서비스업으로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음
- 사업주의 고용창출 부담과 요건 및 행정절차의 어려움으로 사업주의 기피 요인이 있고, 위라벨 일자리 장려금이나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장려금 등 경합하는 사업이 존재(중복사업은 아님)
 - 당 사업이 난항을 겪은 이유는 다른 사업과 달리 고용창출 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요건 및 절차의 복잡성, 코로나 사태의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제도개선 노력

- 주 52시간제의 정착을 위해 기업컨설팅을 시행하고,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여 근로시간 단축 지원방식 전환을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기업지원팀-공인노무사로 구성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통해 기업상황별 솔루션을 제공하고, 교대제 개편 등 노무사 컨설팅 제공
- '21년 7월 법정시행일 도래, 코로나 사태로 휴업사업장 확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근로시간제 신설('21년 4월) 등에 따라 공모제 전환 추진 중

4 개선권고

□ 평가등급: 개선 필요

- 본사업의 사업주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이나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장려금 등에 비교하여 제도간 경합성과 차별성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에는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창출 의무가 부여되고 있어 사업주의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에 비해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담당자들이 해당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이 필요하고, 특별 고용촉진장려금 등 타 사업의 업무부담을 완화해야 함
- 코로나 사태로 휴업·휴직자 증가에 따라 고용창출 의무 준수가 어려운 사업장에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 필요
- 코로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영세 중소 사업장의 고용이 감소하는 경우 고용증가 산정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